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대응체제 돌입

농진청,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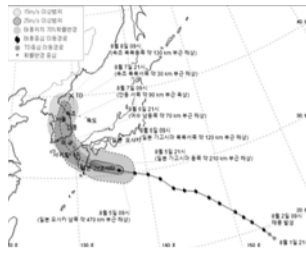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이하, 재해대책상황실)을 5일부터 태풍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해대책상황실은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복상

에 따른 품목별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 및 주의 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대책 수립과 중앙합동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한 비압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물길(배수)을 정



태풍 이동 경로

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워줘야 한다. 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유인해 고정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함께 신속히 보수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815 해방' 대출 선보여

신협, 고금리대출 대한 통해 서민·직장인·자영업자 지원 연 3.1%~8.15% 이내 중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금융소의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해 온 신협이 신협 815 해방 대출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높은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신협이 1천만원까지 연 3.1~8.15% 이내의 금리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 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6일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815 해방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협 임직원 300명이 참석하여, '한국금융의 힘, 신협 815대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고리채 추방 퍼포먼스'와 함께 신협이 불법·탈법·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의 고통을 해방시키는데 적극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 8.15 해방대출은 최근 신협이 제시하고 있는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이 품은 신협만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품"이라며, "순수 국내자본이자 민간 금융협동조합의 출발점인 신협이 거대

외국계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서민들을 지켜내는 동시에,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신협중앙회 정관석 여신지원팀장은 "대출금리를 8.15%로 이내로 지원한다는 뜻에서 815란 이름을 붙였고, 빛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광복절인 8.15를 차용했다."며 고 밝혔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연 3.1~8.15%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타 신협 중복 취급 불가)하다. 대출 대상은 신협 내부 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타 금융사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전담 콜센터(080-815-8150)도 운영해, 신협 이용 경험이 없었던 고객들도 상담 가능하다. 다만 조합 객장을 방문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기청, 전주가막축제서 제로페이 결제시 맥주 이벤트 진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모바일 지불결제(이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전주가막축제(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치맥&가막페스티벌(8월16부터 8월17일까지)'에서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맥주 한병이 공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로페이 전국 가맹점 수가 약 27만개를 넘어섰고 결제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사용자 반응도 높고 있다.

또한, 이벤트는 전주의 명물인 가막맥주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가막축제 두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내 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전주가막축제'에서는 코인 환전시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추가로 1개(2,500원 상당)를 더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전주모래내시장에서 8월16일부터 8월17일까지 진행되는 '치맥&가막페스티벌' 행사에 제로페이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2,500원)을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제로페이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로페이 사용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 동참하고 있는 결제사업자의 앱 21개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결제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이벤트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할인, 포인트, 사은품, 기프티콘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김광재 청장은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곳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더불어 나누는 지역사회 위해 노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복지관 방문 이웃사랑 나눔 펼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6일 전주시 중노송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전주인보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쌀, 청소기,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답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전주인보노인종합복지관은 9명의 장기요양과 32명의 주간보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무료급식 지원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어르신들을 위한 54개의 도시락배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New농촌사랑 체크카드' 이용액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NH농협카드 지역공동체 행복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6일 전주인보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무더위에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웃사랑 나눔이 더 커져가고 있다."며 "꾸준히 NH농협카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덕분에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나누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뛰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FIG 제 7분과 연례회의' 개최

9일까지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서

세계측량사들의 축제인 FIG 연례회의가 12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2019 FIG 제 7분과 연례회의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소재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국제측량사연맹(FIG)과 국토교통부(MoLIT)가 주최하고 LX주관으로 15개국 해외인사와 국내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으로 열리는 연례회의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와 7일부터 사흘간 연계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토지정보(Digital Twin, Smart Cities and Smart Land Inform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서울 연례회의는 새로 취임한 FIG 7분과 위원장 다니엘 파에즈(Daniel Paez, 콜롬비아)를 비롯해 FIG 부회장 오르한 에르칸(Orhan Ercan, 터키), 유엔 국제토지관리기구(UN-GTIN) 국장 오마르 실라(Omar Sylla, 케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5일 개회식과 국내기관 소개로 시작



된 행사는 6일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 지적(地籍)과 토지관리, 지적(地籍) 4.0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했다. 이어, 7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7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공동워크숍과 제 7분과 워킹그룹 보고회를 갖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한 공간정보와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또 다른 힘이 FIG 연례회의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창학 LX사장은 "FIG 회원국 간 다양한 경험과 지식공유를 통해 지적 분야와 공간정보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JB자산운용, 대표에 백종일 전북은행 부행장 선임

JB금융그룹은 자회사인 JB자산운용 신입 대표이사에게 백종일(58) 전북은행 부행장을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백종일 선임 대표의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87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대신증권

을 시작으로 JP모건, 현대증권, 페가수스PE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은행 여신지원본부 부행장을 역임 중이다. 백 대표는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와 프라이빗에쿼티(PE), 은행 등 20년 이상의 금융권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그간 JB자산운용 대표를 겸하고 있던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은

신임 대표 선임에 따라 JB금융그룹 운영에 매진 할 수 있게 되었다.

JB자산운용은 2014년 JB금융지주가 '더커자산운용'을 인수해 만들어졌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대표를 맡아 이끈 첫 해인 2015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총 운용자산(AUM)은 2014년 7천억 원에서 2019년 6월말 6조 3천억 원까지 9배 증가하였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중금리로 부동산, 증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